

#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랫동안 강남북 간의 재정적·공간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조직·예산·재정 측면에서 다각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불균형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25개 자치구 간의 지역격차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조정교부금 확충 및 차등 교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 여러 정책과제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었지만, 실질적 재정조정 효과가 미약해 비강남 시민들은 여전히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정책 시행의 누적효과가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추이마저 보이고 있어, 기존의 재산세 균등배분 방식이 과연 실효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서울시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된 재정조정 관련 제도의 시행 효과를 관련 주체들과 집중적으로 논의·연구하여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서울의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재정조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관련 실국의 재정균형발전 TF 구성, 법 개정 건의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연구,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수렴, 토론의 장 마련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간 재정 형평성을 극대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공평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서울시민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 진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보다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동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